

의료용 가스 시장으로 눈을 돌려라!

북미, 자택치료 시장 연평균 7-8% 성장 ... APC · Praxair · BOC 경쟁

북미의 공업용 가스 자택치료 시장은 최소 60%가 소기업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머지않아 규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pria Healthcare 및 Lincare가 거대기업이며 그 외 8개의 지역기업이 있으나 5년 뒤에는 대규모 통합으로 소기업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ir Products는 자택치료 사업이 7-8%씩 성장할 것이나 AHS를 기반으로 인수 및 확대를 진행되면 성장률이 최소 12%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Praxair의 건강치료 사업은 2002년 10% 이상 증가했는데 매출이 2001년 4억5000만달러에서 2002년 약 5억 2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자택치료 사업의 비중은 2001년 40%에서 50% 수준으로 증가했고 북미가 건강치료 사업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Praxair는 성장을 위해 5년 전 소규모의 자택치료 공급기업들을 인수했다.

Praxair는 미국 병원의 선도적인 가스 공급기업으로 "Hospital to Home" Initiative를 통해 자택치료 시장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Praxair는 의사가 처방한 호흡치료를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고 트레이닝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처방전을 따르고 있어 병원 또한 이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axair는 소규모 기업들을 추가 인수할 계획으로 사업확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 60%는 호흡치료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BOC 또한 경쟁기업들과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2회계연도 9월30일 기준 건강치료 매출이 1억 9100만파운드(3억달러)로 증가했는데 기관치료 사업의 매출비중이 80%로 병원공급용 가스 설비 주위에 신제품 및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OC는 자택치료 사업을 위해 유통 및 인프라 기초가 튼튼한 영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선호하는데 영국, 아일랜드, 북미 및 아시아태평양은 각각이 BOC 사업의 약 30%를, 남아프리카가 나머지 비중을 차지한다.

공업용 가스 공급기업들이 자택치료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자택치료 사업이 고수익성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선도적인 자택치료기업인 Apria 및 Lincare가 벤치마크를 제공하고 있다.

Lincare은 2002년 매출 9억6100만달러에 대한 순수익이 20%, Apria는 매출 12억5000만달러에 수익 9.2%를 기록했다.

<Chemical Journal 2004/03/10>